

Tania-Hopaniuk

Boy / 1.78 Göğüs / 88 Bel / 66 Kalça / 101 Ayakkabı / 40 Göz / Mavi Saç / Kumra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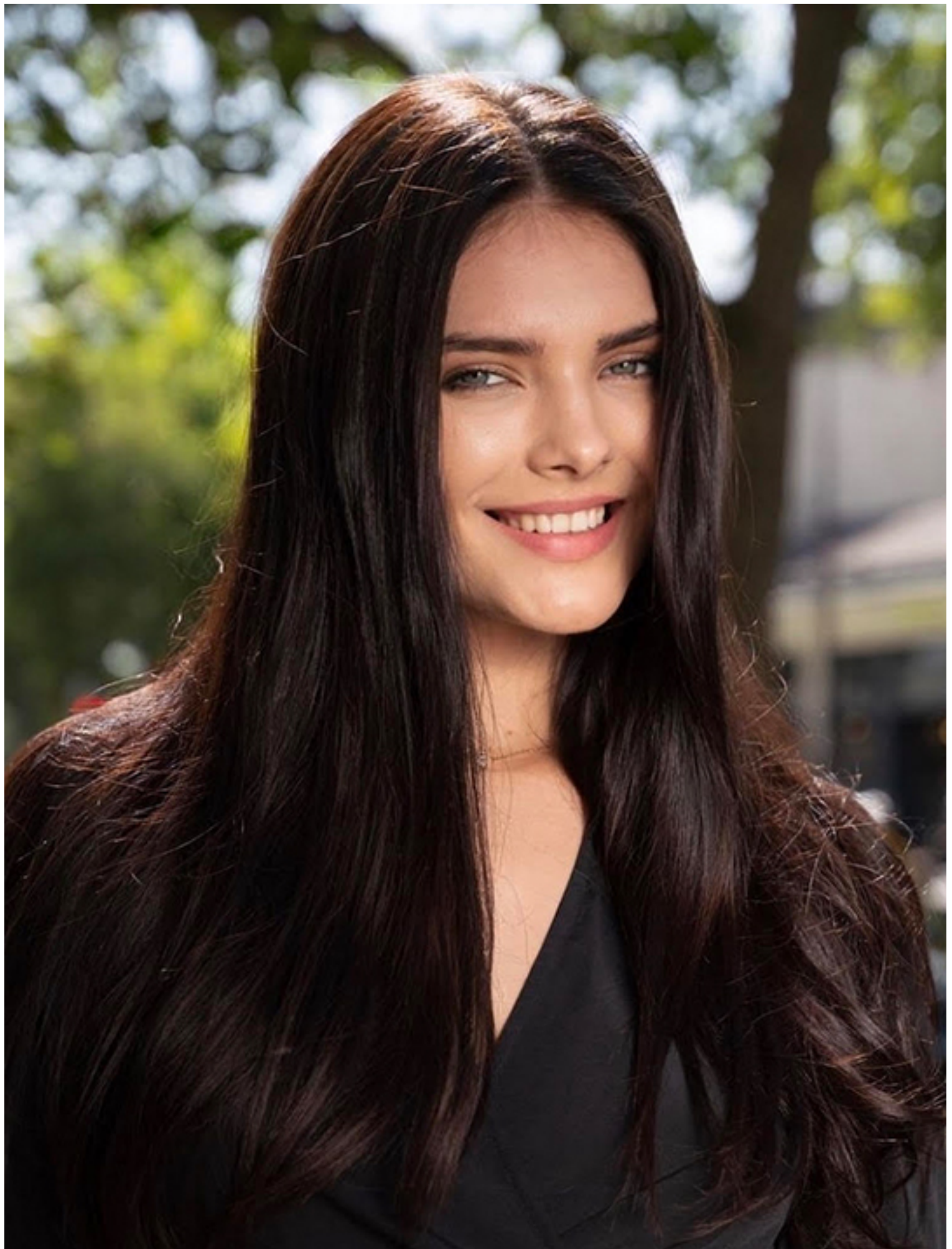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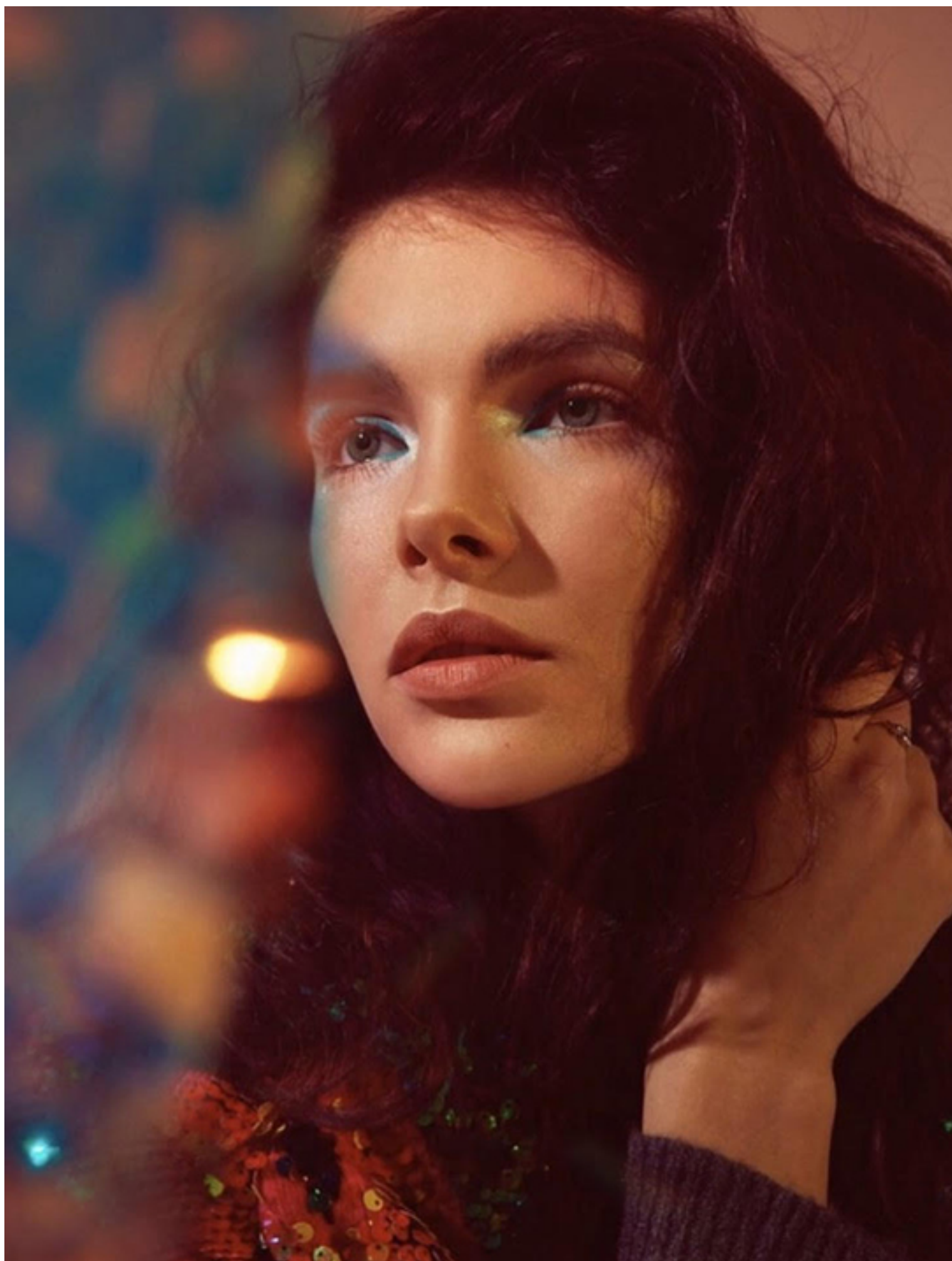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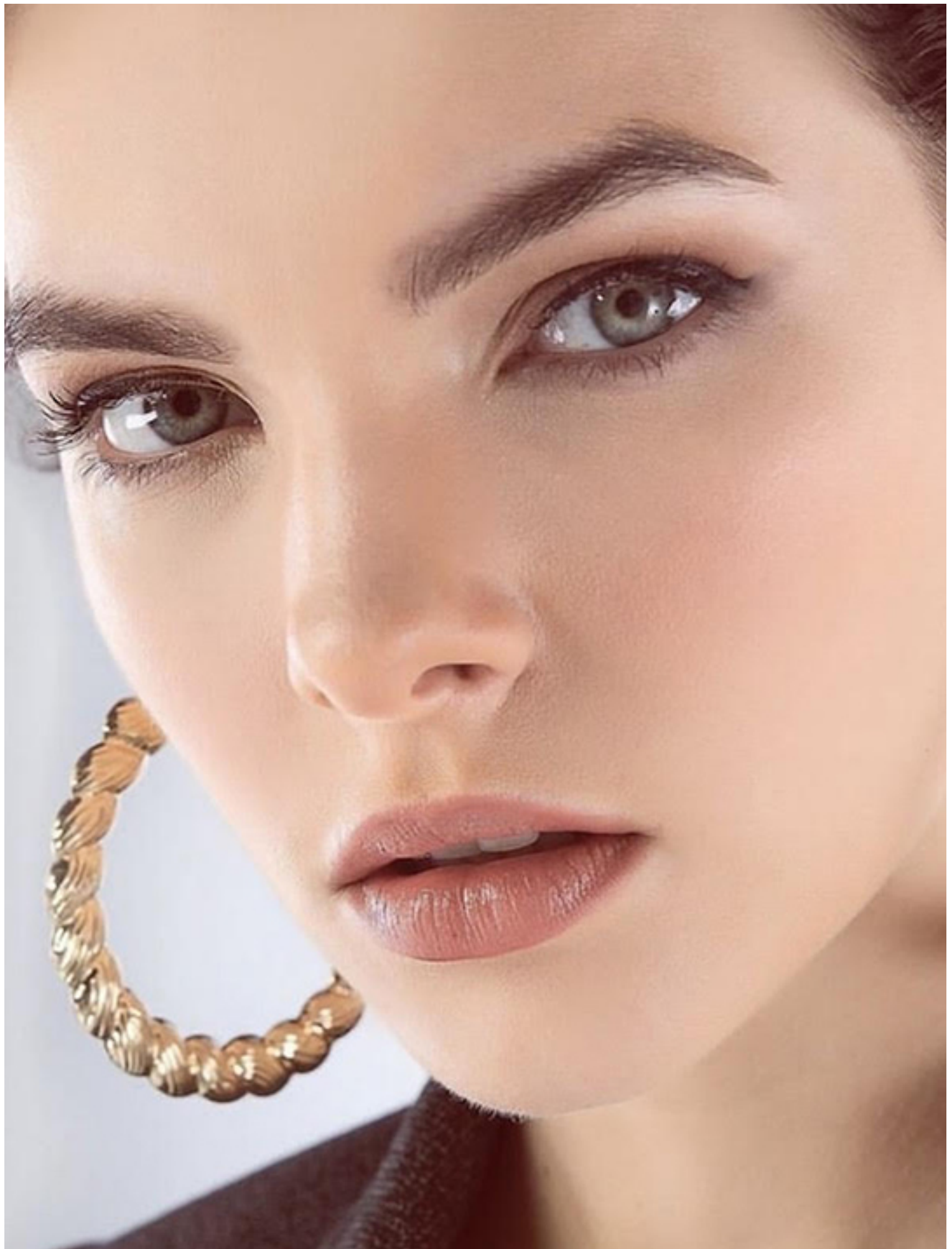












LORFUL OMS

선정한 키 컬러들로 구현한 메이크업 터치. 꽃처럼 화사하게
났다. 에이코리 정소나 진행 | 정민영(메이크업) | 정민영



GRASS ON THE FIELD

올해는 들꽃이 연상되는
상그러운 그린 컬러를
눈여겨보는 게 좋겠다.
담한 컬러 사용이 서툴다면
브러시에 그린 컬러 세도를
조금씩 묻혀 섬세하게
타치하는 게 입 눈 전체에
그린 컬러 세도를 퍼 바른
뒤 골드 팔 파우더 세도를
눈여려와 언더 눈꼬리에
레이어링하면 그윽한
눈매가 완성된다. 그린 컬러
마스카라로 눈썹 아래리부터
쑤어 정돈한다.

1 RMK W 컬러 마스카라 EX-04
그린 컬러를 2가지 컬러를 구현한
투명 마스카라. 섬세한 브러시가
장식돼 아름답게 보인다. 69
3천9천원 **2** 에이코리정소나
스튜디오 파우더 17행의 골드
섀도우를 미세하고 고운 팔
입자가 자극 없이 눈가를
정돈한다. 1,303천원 **3** 샤넬
레프르 몽블랑 306 스킨케어
에 오메스 고혹적이고 세련된
아이 메이크업을 완성해줄 4색
아이셰도. 쿼터 피그먼트가 함유돼
선명한 컬러감이 장수이다.
29,700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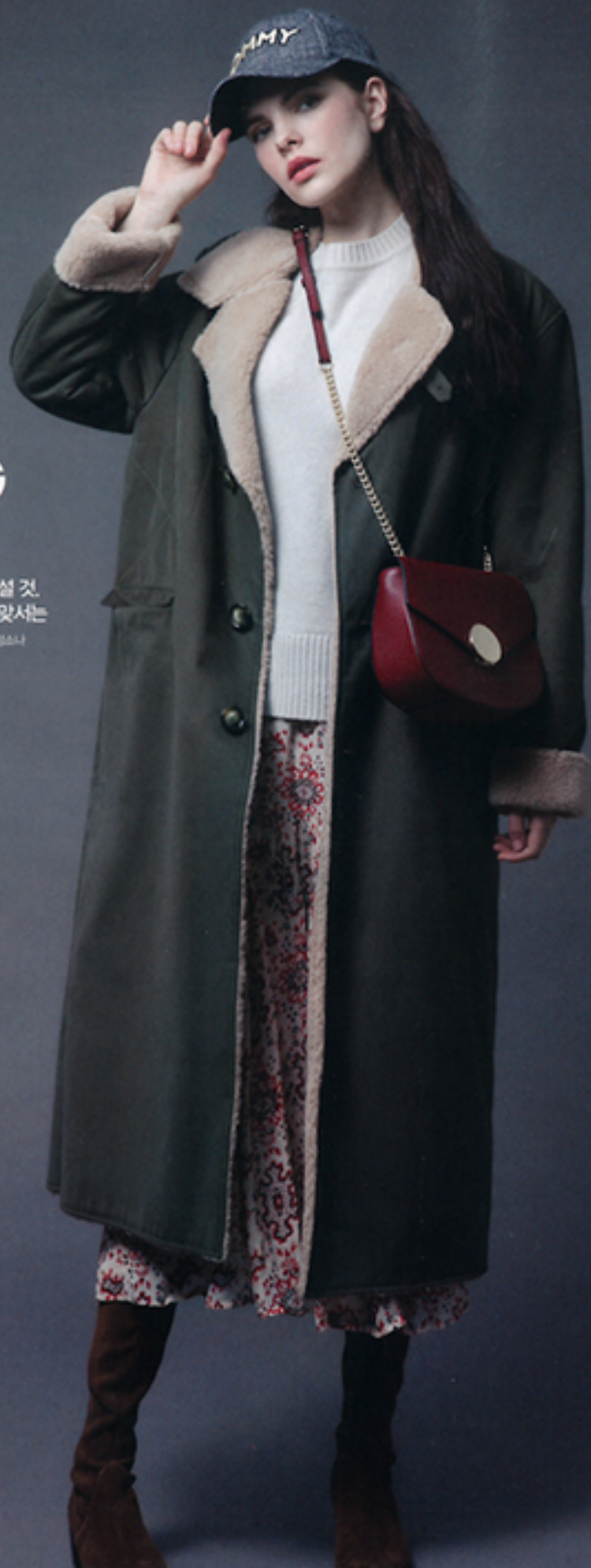






VERY LONG DAYS

기나긴 추위에는 길고 긴 아우터로 맞설 것.
온몸을 감싸 해서운 바람에 근사하게 맞서는
4가지 소재의 롱 코트 스타일링. 에디터 정소나



CHIC MOUT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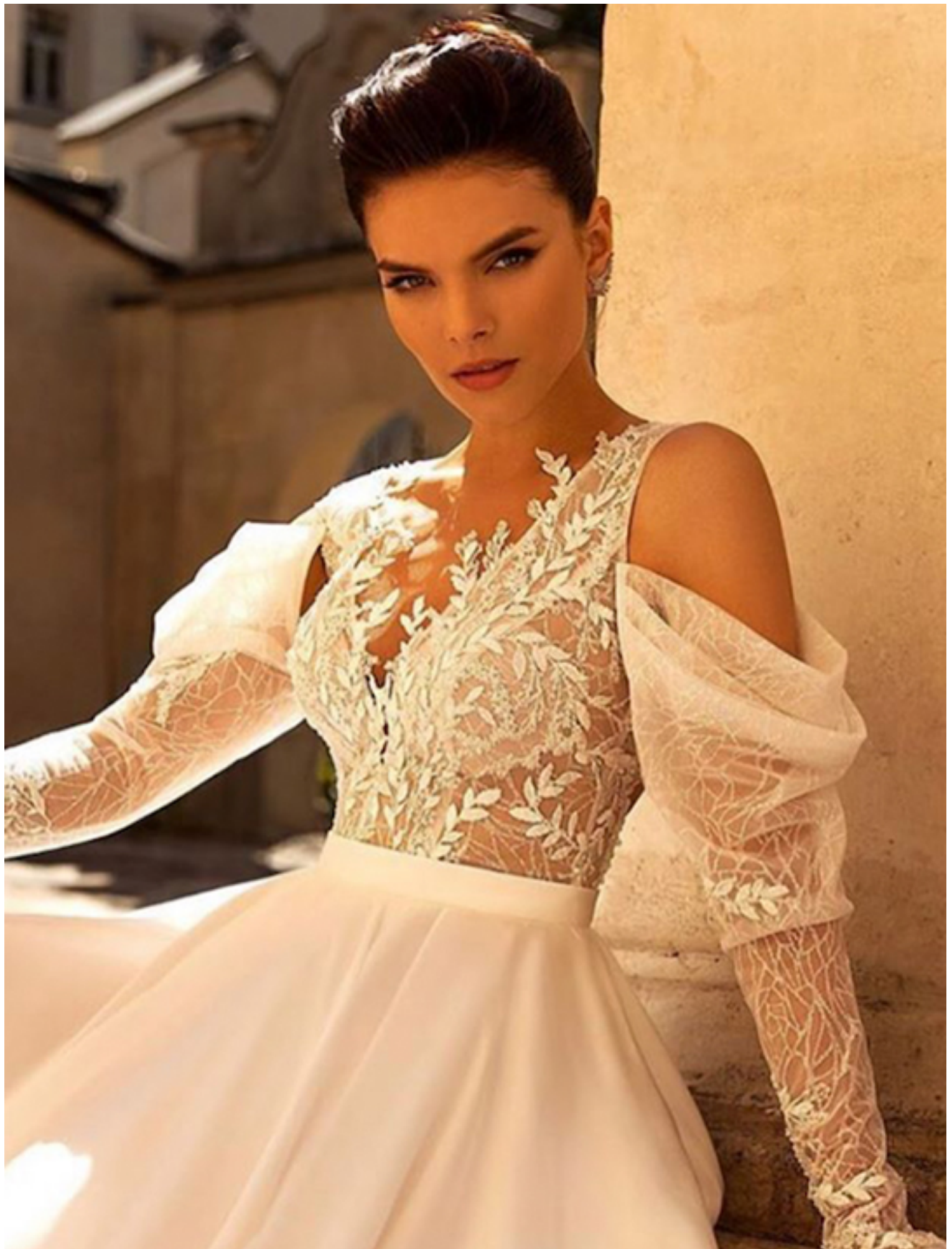
안감은 양털로, 겉감은 가죽으로 된
무릎 코트. 따뜻할 뿐 아니라 특유의
투박하면서도 시크한 매력 덕분에
겨울이다 빠지지 않고 찬랭이를
뽐내는 아이템이다. 이번 시즌에는
바이커 재킷처럼 짧은 디자이크보다
무릎을 덮는 길이에 다양한 소재가
믹스매치된 오버사이즈 실루엣의
무릎 코트가 대세 사이징 소재를
겉감으로 활용하면 개성 강한
무드를, 가죽을 밖으로 입으면
보헤미안 룩에 아우러지며 개성을
더한다. 패시브한 플러워 프린트
원피스와 나트 톤을 레이어드한 후
매시한 실루엣의 무릎 코트를
겹치면 시크하게 중화된 뉴 허피 룩
안성 여기에 볼업을 꼭 넣어보면
절고 올한 기운까지 곁들여진다.

코트 소재 겉감으로 가볍고 따뜻한 커기
사이징 코트 2백50만원 언스탈트형,
라운드 넥 나트 톤 50만원 언스탈트형
OK, 플러워 프린트, 플러워 패턴 원피스
가죽이질 50만원 언스탈트형 브루노,
로고 디자이크 재킷 볼업 50만원 언스탈트형
타이틀피겨, 버건디 체인 숄더백
가죽이질 볼업 50만원 언스탈트형
부츠 50만원 언스탈트형 스텔라 워터프린트













강박관념을 무릅쓰고 찾아온 모델이 있어
메이크업, 연지 브로마이드로 눈길 끌기를
완벽히 감을 잡았다. 눈 밑에 그려진 컬러로
포인트를 준 웨이스/나를 찾는 것으로 아이
메이크업은 심플하게 연출한다. 입술 라인에
잇착 오렌지 컬러 립스틱을 전체적으로 바른
다음 투명한 립글로스를 얹어 마무리한다.
빛은 오렌지 컬러의 메이크업은 JALOUSE

COLOR *and* THE FUR

